

인간 본연의 모습 vs 내면의 다중적 모습

손봉채 '이주민' 중동서 주목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기획전 '시대의 얼굴'

31일까지 작가 6명 40여 점 작품 전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특별 기획전으로 광주문예회관 갤러리가 '시대의 얼굴'전을 마련했다. 5일부터 31일까지 김성결, 박수만, 백상욱, 서완호, 설총식, 하승완 등 여섯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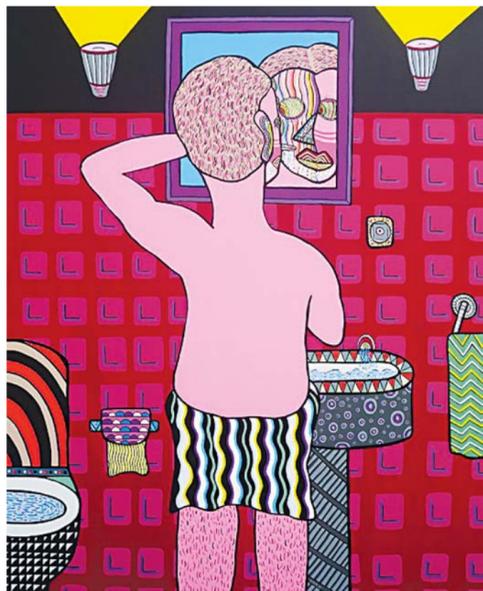
개인의 욕망, 인간 내면의 감정,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등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다양한 감정과 상황 등을 표현한 회화·조각 작품 39점이 전시된다.

작가들은 각기 다른 시점과 주제의식으로 우리 시대의 얼굴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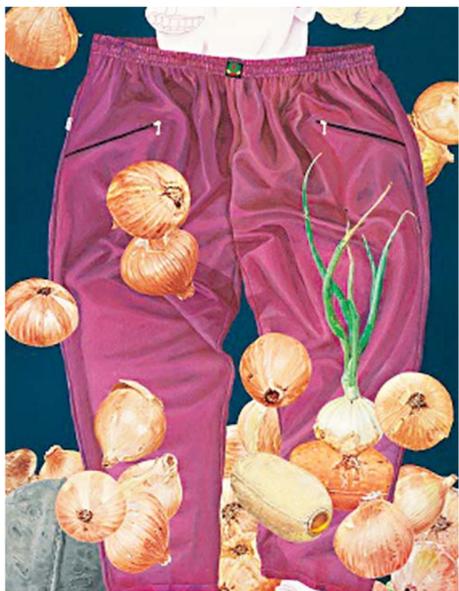
'얼굴'이라는 주제는 당대 표현기법과 함께 다양하게 발전해온 소재이자, 한 존재를 다루는 개인적인 표현의 영역을 넘어 시대정신과 사회적 이슈까지 담아내는 창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결의 작업은 긴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다. 왜곡된 인물의 모습은 바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소통을 단절한 채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얼굴이다. 우리네 삶에서 어디에서도 쉬이지 못하고 속으로 슬프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는 광대와 같은 모습, 깊이 숨겨둔 인간 내면의 모습들을 작품에 표출시킨다.

박수만은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 점차



김성결 작 '마음씻기'



박수만 작 '미인도'

사라져가는 인간의 순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품 속 변형과 왜곡된 신체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파편화되고 구조화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풍자와 유희가 넘치는 장면들은 현대의 모습을 반영한다.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과거의 향수와 추억을 담은 고무신을 작품 소재로 다루는 백상욱은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을 고무신 속에 조각으로 표현한다. 생동감 넘치는 고무신 속 표정 하나하나에는, 한 삶이 응축된 듯 표현됐

며,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얼굴들은 가까운 이웃, 친구, 가족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일 것이다.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회의 구조에 주목하는 서완호의 도시풍경은 고요하고 적막함이 흐른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친숙한 풍경이지만, 친근함과 정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쓸쓸함과 함께 사람들의 표정과 뒷모습에선 상실과 결핍의 정서가 배어난다.

설총식은 동물을 의인화한 시리즈 작품을 보여준다. 각 나라마다 이해타산을 따지는 정치적 현실을 풍자한 작품 '6자회

담'은 2013년 당시 남북한의 위태로웠던 상황을 견제하고 조정하는 6개국을 동물 상으로 빗대어 연출한 작품이다.

하승완은 회화적 내러티브를 연결 짓는 구조와 시각적 읽기 행위에 주목하며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회가 제공하는 다층적 소재에 독자적인 시선으로 접근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삶의 의미와 양태를 드러내고, 그 속에 담긴 일상 속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관람료는 무료다. 문의 062-613-8357. /이연수 기자

설치미술가 손봉채 작가의 작품이 중동에서 주목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미술의 새로운 감각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미술의 중심이자 아랍 최대규모의 아트페어인 아부다비 아트페어가 지난달 열린 가운데 손 작가 작품에 대한 워크숍이 열리고 현지 언론이 조명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아트페어 조직위는 이례적으로 손 작가와 작품을 주제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현지 언론토 비중있게 다뤘다.

아부다비 아트페어 조직위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과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워크숍에 손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품기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소울아트스페이스 갤러리 관계자는 "손 작가의 작품이 '이주'라는 현대의 민감한 문제를 서정적이고 사유적으로 거론하며 보편적 정서를 이야기해 해외 반응이 높다"며 "페어에서 운영하는 10여개



의 워크숍 중에 한국 작가는 손 작가가 유일하게 갤러리로서도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현지 유력일간지 'CANVAS Daily'는 손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사유의 세계로 청중을 안내한다"고 평했다.

이같은 반응은 손 작가의 아부다비 첫 무대라는 점에서 향후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게한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대표도시로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감각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세계 미술작품과 예술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손 작가의 회화작품 '이주민' 연작은 동양적 사유와 현대적 기법으로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연수 기자

'길에서 길을 묻다'

정경래 작가 개인전

20일까지 도화현미술관

바닷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고흥 반도 끝자락 도화현미술관(관장 박성환)에서 전남문화관광재단 공간연계형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도화현 레지던시 정경래 작가의 개인전을 오는 20일까지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길에서 길을 묻다'로 30점의 평면작을 선보인다.

오랫동안 동양전통의 기반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왔던 작가는 근래 들어 서양화 기법을 이용해 풍경화, 인물화를 그려낸다. 전통적인 고재(古材)에 유화 및 혼합 재료를 사용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독특한 질감과 색채를 드러낸다.

특히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어머니 시리즈 중 '삶이란 I', '삶이란 II' 작품은 몇십 년 전 시장통이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작가를 포함한 우리 시대 어머니의 자화상이다.

작품 속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밤늦도록 일하며 정작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은 그런 어머니다. 이뿐만 아니라



'삶이란 I'

아련하고 모습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어머니. 얼굴 가득 뒤얽힌 주름 속에서 온갖 삶의 질곡이 묻어난다.

작가는 작품에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며 때면 경건한 마음과 산고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정성을 담아 쌀을 한 톨 한 톨 어머니 얼굴에 부착한다. 일종의 '오브제(objet)' '형식을 빌려 새로운 느낌과 상징적 의미로 어머니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는 어머니와 우리네 삶,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작가는 오늘도 길에서 길을 묻고 있다.

/이연수 기자

여러분의 꿈은 어디쯤 왔나요?

김시연 첫 번째 개인전 '꿈의 여정에서' 오늘부터 무등갤러리...수채화30점 선봬

김시연 작가가 '꿈의 여정에서'라는 주제로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연다. 5일부터 11일까지 수채화 30여점을 전시한다.

여행을 통해 작품의 소재를 찾는 작가는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작품을 탄생시킨다. 성내리 고적, 북경 마을, 제주도의 마을 등 작가의 작품은 기억과 추억을 끄집어 내 고향 품에 안긴 듯 편안하고

따뜻하다. "작업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그 과정 중 진솔하게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하는 작가는 "좋은 작품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솔하고 충실한 과정이 쌓여가다 보면 자신의 색과 이야기는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

작가는 미술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늦깎이 공부를 시작해 10년을 넘게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하루하루 꿈의 조각들을 모아 첫 번째 개인전을 마련하고 설레임과 기대를 전한다.



'천태만상'

"처음의 의미는 항상 설레고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작품과 함께 한 꿈의 여정에 여러분의 꿈은 어디쯤인지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픈식은 5일 오후 6시. /이연수 기자

골드클래스(주)

골드디움(주)

보광종합건설(주)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자연과 행복 위에 지은 아파트

광주광역시 우수시공아파트로 선정! "행복위에 지은집"을 건립하여 주거문화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분 한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Gold Class

- 광주 화정동 수상복합
- 여수 흥천 레지던스
- 순천 조례동 2차 골드클래스
- 순천 조례동 3차 골드클래스
- 목포 백현지구 골드클래스
- 대구 수성구 중동 골드클래스
- 부여 쌍북 골드클래스
- 당진 송산지구 골드클래스
- 강원 원주 행구동 골드클래스
- 제주특별 노인복지시설